



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8년 전기차 판매가 63 퍼센트의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다고 발표**

*뉴 스테이트 분석(New State Analysis)에 따르면, 전기차가 2030년까지 50억 달러의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전기차 운전자, 공유차량, 버스, 주 정부 소유 차량 등을 위해 존에프케네디 공항(JFK Airport)에 만들어질 새로운 급속 충전 허브는 미국 최초의 비테슬라(Non-Tesla) 급속 충전 허브*

*국가 주도의 청정에너지 및 일자리 어젠다로 뉴욕을 탄소 중립화할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기차를 구매하는 뉴욕 주민의 수가 기록적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 판매 증가율은 63 퍼센트에 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차의 숫자는 2017년 24,551대에서 2018년 36,854대로 늘어났습니다. 또 오늘 공개된 새로운 보고서의 새로운 비용-이익 분석에 따르면, 뉴욕주의 전기차 사용 증가로 전기차 운전자 및 유틸리티 소비자 모두의 금전적 절약 효과 등 최대 51억 달러 규모의 사회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전기차 사용 증가는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 정책(Green New Deal)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선도적 청정에너지 및 고용 어젠다로, 뉴욕주를 탄소 중립주가 되도록 이끌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낮추겠다는 뉴욕주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전역에서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감에 따라, 뉴욕에서 전기차를 운전하는 일이 더욱 쉽고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전기차 판매의 급격한 증가는 이러한 차량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지 뉴욕(Charge NY) 이니셔티브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를 추구하는 우리의 능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전기차 인프라 투자를 실시하여 사용을 독려하고 증가시킬 것입니다. 판매 증가는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충전소와 기타 자원을 지원하여 전기차 이용을 더욱 손쉽게 만들고 우리의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John F. Kennedy International Airport)에 새로운 급속 충전소를 설치하여, 주요 국제 환승지에서 택시, 공유차량, 버스, 기타 전기차가 20 분 내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의 지원으로 전기차 분석을 실시하여, 도로에서 운행하는 전기차의 숫자를 2025 년까지 850,000 대, 2030 년까지 200 만 대로 늘리겠다는 뉴욕주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의 이익과 비용을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이익은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차로 이동하면서 뉴욕주가 받게 되는 직접적인 금전 이익을 고려할 뿐 아니라,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인한 간접적 이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전기차 운전자, 기타 유틸리티 소비자,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전기차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상이한 전기 요금 및 충전 인프라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뉴욕시/웨스트체스터, 롱아일랜드, 업스테이트 뉴욕 등 뉴욕주의 세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공을 거둔 뉴욕주의 청정차량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와 연방 세액 공제 등 전기차 인센티브는 구매 증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전기차 운전자의 전체 이익의 20 에서 35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 지역별로 사회적 이익은 달라지지만, 유틸리티로 인해 피크 타임 외의 충전이 많아질 경우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피크 타임 외의 충전이 많아지면, 주 전역의 사회적 이익은 28 억 달러에서 51 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 급속 충전소의 숫자를 늘린다면, 더욱 많은 전기차 사용으로 절약되는 비용이 이러한 충전소로 인한 추가 비용의 상쇄분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은 주 전역에서 약 6 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 충전 인프라 비용은 2030 년까지 약 60 억 달러로,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혁신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한 비용 감소는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모든 지역에서 추가적인 전기차의 도입으로 인한 유틸리티 비용의 증가분은 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보다 차량 한 대당 4,500 달러 정도 큼니다. 이 보고서는 전기차 도입을 확대하는 일에 유틸리티를 투자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비용 절약 효과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뉴욕 주민들이 전년보다 더욱 많은 전기차를 구매한 후에 공개되었습니다. 뉴욕의 2018 년 전기차 판매는 16,000 대 이상으로, 2017 년에 비해 약 60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이유는 부분적으로 차지 뉴욕(Charge NY)으로 인한 수많은 이티셔티브입니다. 차지 뉴욕은 Cuomo 주지사가 전기차 및 트럭의 증가를 위해 실시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볼브 뉴욕(EVolve NY)은 충전 인프라 간의 시장 격차를 해결하여 전기차 도입을 비롯해 주 전역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급속 충전소 배치를 가속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뉴욕 전력청(New York Power Authority, NYPA)은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2025년까지 최대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존에프케네디(JFK) 공항의 충전소는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이 이볼브 뉴욕(EVolve N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안 및 설치합니다. 새로운 공항 충전 허브에는 13개의 150킬로와트 직류(DC)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테슬라(non-Tesla) 충전 허브가 만들어집니다. 존에프케네디(JFK) 충전기 중 열 개는 일반인, 공유차량 운전자, 택시, 항만청(Port Authority)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셀폰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 개의 충전기는 인근 주차장에 설치되어 항만청(Port Authority)의 전기버스가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미 공항 내에 위치해 있는 실내 주차 공간에 중속(2단계) 충전기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볼브(EVolve) 프로그램은 또한 운전자들이 20분 내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최대 200개의 급속 충전기를 뉴욕주 스루웨이 및 기타 주요 교통로, 다섯 개의 뉴욕 주요 도시등 50곳 이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청정차량 리베이트(Drive Clean Rebate) 계획은 새 전기차 또는 임대 전기차를 얻는 뉴욕 거주민에게 최대 2,000달러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또한 이 7,0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14,000개 이상의 리베이트를 집행했습니다.
- 차지 레디 뉴욕(Charge Ready NY)은 해당 계획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 빌딩 소유주, 지자체 및 비영리 조직에 차량 충전소당 4,000달러를 지원하여 신규 2단계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은 이 이니셔티브를 위해 500만 달러를 투자해 총 1,250개의 새로운 충전소를 만듭니다.
- 전기차를 구매 또는 임대하는 지자체에 대한 리베이트.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는 이 프로그램에 300,000달러를 투자합니다.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의 청장인 **Alicia Barto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제시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이 주 전역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숫자를 늘리는 한편, 연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롭고 창조적인 방법을 지원하는 올바른 길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의 다각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 청장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존에프케네디 공항(JFK airport) 주변을 1,300만 대 이상의 승용차가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의 새로운

고속 충전 허브는 잠재적으로 뉴욕시 200 마일 반경 이내의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 전력청(NYPA)의 이볼브 뉴욕(EVolve NY) 이니셔티브에 따라 전기차 운전자들은 공항에서 아디론댁까지 우리 주를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 전력청(NYPA)은 주 전역에서 전기차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청정 차량의 사용은 더욱 많은 소비자들에게 현명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교통과 연관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돕고 현재와 미래의 우리 환경 및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뉴욕뉴저지항만청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의 Rick Cott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끈질긴 노력의 일환으로, 항만청(Port Authority)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 실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정에너지의 미래로 향하는 가운데, 케네디 공항(Kennedy Airport)에 생길 새로운 급속 충전 허브는 우리의 고객과 직원, 공항 내의 협력사들이 더욱 손쉽게 그들의 일상생활에 전기차를 빈틈없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뉴욕 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돈을 절약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조짐입니다.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려는 Cuomo 주지사의 계획은 대담하면서도 실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욕은 운전자들이 주 전역에서 충전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선두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환경보존부(DEC)는 뉴욕에서 청정에너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투자에 지원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스루웨이 관리청(Thruway Authority)의 Matthew J. Driscoll** 상임이사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청정 교통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스루웨이 서비스 지역과 웰컴 센터(Welcome Center), 스루웨이 소유의 통근자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의 숫자를 늘려 뉴욕에서 전기차 이용을 더욱 쉽고 저렴하게 만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미션을 지원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급속 충전소를 늘리면, 전기차 이용자들은 다음 충전소가 얼마나 남았는지 걱정할 필요 없이 570 마일 규모의 스루웨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원 에너지 위원회(Assembly Energy Committee)의 의장인 Michael Cus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이 전기차 도입에서 이루어온 진보와 그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오늘의 발표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줄어들고 인프라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뉴욕의 요구 사항이 이 산업에서 기술적 진보 및 경제적 실행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통은 뉴욕주에서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휘발유 구동 자동차와 비교할 때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마일당 50 퍼센트에서 70 퍼센트 더 적은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가 3,200 곳 이상 설치되었습니다.

차지 뉴욕(Charge NY) 2.0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차지 뉴욕\(Charge NY\) 2.0 웹사이트](#) 혹은 [뉴욕 전력청\(NYPA\)의 전기차 서비스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오.

비용-이익 분석의 전체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욕주의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미국을 선도하는 청정 에너지 및 일자리 어젠다인 Andrew M. Cuomo 주지사의 그린 뉴딜 정책(Green New Deal)은 뉴욕주를 탄소 중립성 경제 체제의 길로 적극적으로 들어서게 할 것입니다. 본 계획은 청정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2040년까지 뉴욕주 전력량을 100 퍼센트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으로 생산할 것을 규정하여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신규 의무 조항은 뉴욕의 성공적인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의무 조항을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전력 생산량 70 퍼센트 달성'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례 없는 재생 가능 에너지 수치 증가의 일환으로, 뉴욕은 이미 뉴욕주 전 지역의 대규모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46 건에 29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로써 (1) 2035년까지 뉴욕주 해양 풍력 발전 에너지를 9,000 메가와트로 네 배 늘리기, (2) 2025년까지 태양 전지 에너지 송전량을 6,000 메가와트로 두 배 늘리기, (3) 2030년까지 3,000 메가와트 규모 에너지 저장소 배치하기 등, 청정 에너지 목표를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욕 그린뱅크(NY Green Bank)는 야심찬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격차를 극복하는 데 전문 지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 3차 모금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모아 뉴욕과 나머지 북미 전역에서 기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고, 공공 자금으로 환경적 영향을 더욱 크게 키울 것입니다.

###

[구독 취소](#)